

“중증장애인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금호석유화학

복지시설에 맞춤형 휠체어 기증

금호석유화학은 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중증장애인용 맞춤형 보장구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8곳에 맞춤형 휠체어를 포함해 약 5800만원 상당의 보장구 26대를 기증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기증한 맞춤형 휠체어는 일반 전동 휠체어에 우레탄 재질의 이너(맞춤형 자세 유지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특수 휠체어이다. 사용자 신체가 성장과 교정을 거치며 변화함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의 이너가 필요하지만, 높은 제작 비용 때문에 시설 차원에서 마련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돼왔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매년 맞춤형 휠체어 등의 보장구들을 서울장애인복지협회가 선정한 시설에 기증해 왔다.

전달식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및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비롯한 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사 관계자들과 안찬율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장, 김원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포함한 시설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달식 이후 시설 각 종의 거주·의료·재활 공간 등을 둘러보며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금호석유화학은 화학제품을 통해 소외계층의 신체적·물리적 장애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맞춤형보장구 지원사업 외에도 복지시설 창호교체 사업, 임직원 성금 전달, 시각장애인용 휴지팡이 보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IBK기업은행 하키협회에 후원금 2억원 전달

하키 저변확대 등 사회적 책임 다할 것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남녀 하키 국가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하키협회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과 강동훈 대한하키협회장이 후원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오늘의 운세

5월 10일 (음 3월 25일)



48년생 눈에서 멀어 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60년생 자형살이 작용 하여 불미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72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 상충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 84년생 과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49년생 탕화살이 있으니 화상을 주의 하라. 61년생 한번 맷은 인연은 영원하도록 하라. 73년생 호사다마니 기쁨이 있는 곳에 시비가 생길 수 있다. 85년생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50년생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나 절대 무리하지 마라. 62년생 물오른 나무에 꽃이 만발 하듯이 화려하다. 74년생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명심하라. 86년생 인생길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51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63년생 천을 귀인의 도움이 있어 어려움이 해소 된다. 75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언쟁할 일은 일단 피하고 보라. 87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52년생 남이 잘못한 일을 뒤집어쓸수 있다. 64년생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 친구 잊고 돈도 잊게 된다. 76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일자리가 생긴다. 88년생内外부 이해관계자의 이슈파악부터 하여 대응 하라.



53년생 삼형살이 있으니 교통사고를 주의 하라. 65년생 계획을 확실히 세운 후에 나서면 몸도 마음도 가벼운 법이다. 77년생 외화 내빈 한 상대방에게 속지 말라. 89년생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갖고 위기에 대응하라.



54년생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니 내자신부터 살펴보라. 66년생 조직내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경써라. 78년생 윗사람의 개인 신상에 관심을 두지 마라. 90년생 유리한 국면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라.



55년생 귀문살이 작용 하여 이론과 현실이 엇박자를 내낼수 있으니 조심 하라. 67년생 일의 경중을 따져 처리 하라. 79년생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 91년생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56년생 문서운이 있어 계약할 일이 있다. 68년생 대인관계가 좋으니 프로슈머 사업을 고려 해 보라. 80년생 옛것이 가지고 새것이 다가오는 운세다. 92년생 생각을 달리 하면 안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



57년생 사적인 일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 69년생 혼자獨自 하면 주변의 질투와 시기를 받는다. 81년생 현재 진정성이 결여된 일이라면 안하는 것이 낫다. 93년생 밖에 나가면 반기는 사람이다.



58년생 상사에게 인정받고 일취월장하는 운세다 70년생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라. 82년생 전업이나 전직을 고려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다. 94년생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59년생 외신상담이라 힘든 것이 지나면 나중에 편해진다. 71년생 재성운이 들어와 투자할 일이 생긴다. 83년생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건강이다. 95년생 조직내에서는 단합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7		1			
		2	4		5		8	
3			1		2			
1			2					
	3			7				
		6			5			
7		1					2	
6	4		5	1				
2		6		9	5			

					5	9		
3			2					
2		7			3	4		
4	3			2			6	
5		8		1			2	
9		3		5	7	6		
1			5	4	3	6	7	8
6		2	7	9	3	1	4	
7	2	8	7	5	2	9	3	6

스도쿠 정답								
8	2	1	7	6	3	4	9	5
6	3	4	9	2	5	1	8	7
9	7	5	1	4	8	6	3	2
4	8	9	6	1	7	2	5	3
7	1	6	5	3	2	8	4	9
3	4	7	5	8	1	9	2	6
1	9	2	4	3	6	5	7	8
5	6	8	2	7	9	3	1	4
7	5	3	1	2	9	6	7	2
1	8	9	5	4	6	7	2	3
9	6	2	3	8	4	5	7	1
5	7	8	9	6	1	4	3	2
4	3	1	7	5	2	8	9	6
2	9	7	6	1	5	3	4	8
3	4	5	2	9	8	1	6	7
8	1	6	4	7	3	2	5	9

문제 제공= 문우수



증진공, 경상대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맞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상대학교와 경남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증진공과 경상대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직무교육 및 채용홍보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 현장실습,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증진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벌맞춰 지역인재에 기점을 부여하고 채용할당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증진공 이상직 이사장(왼쪽 여섯번째)과 경상대 이상경 총장(오른쪽 여섯번째)이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한성대 '천원의 기적'으로 쌀 1톤 전달

한성대 디자인아트평생

교육원(한디원)은 지난 8일 오전 성북지역 미용봉사 '천원의 기적'을 통해 모금된 사랑의 쌀 1톤(10kg짜리 100포)을 성북구 삼선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천원의 기적은 2017년부터 매달 셋째 주 목요일 교내 본관에 위치한 뷰티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용봉사로 한디원과 산학협력을 맺은 헤어브랜드 기업 비아이티살롱, 에스테틱전문 브랜드인 올가휴 소속 전문 디자이너와 한디원 미용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커트, 염색, 스키니케어, 네일아트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디원 한혜련 원장을 비롯해 삼선동 주민센터 안귀성 센터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오정식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용수 기자

김상회의四季

나의 별을 품어보라!

천재적인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그가 남긴 천체물리학에 관한 업적은 지구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우주에 관한 통찰을 선물해주었다. '시간의 역사'라는 우주과학서는 그 어떤 소설이나 대중서보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저 감상적으로만 바라보던 밤하늘에 대해 인류의 근원적 시원을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감상적 대상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과학적 역추적의 시동을 건 것이다.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던 빅뱅이론과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그로 인해 배우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로 인해 우주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천체과학은 생활 속의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북극성이며 북